

■ 실속 재테크

장외주식 투자 하려면

상장 가능성이 '체크 포인트'

최근 삼성생명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장외거래에서 80%가량 급등하는 등 장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광주·전남지역 장외주식 가운데서도 삼성광주전자가 저평가 및 삼성전자와의 합병설 등으로 급등하기도 했다. 장외주식은 잘 고르면 상장후 '대박'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지만 거래도 쉽지않고 주의해야 할 점도 많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장외대표주 삼성생명 내년 상장에 80% 급등 삼성광주전자·심포니에너지 관심가져볼 만

■ 장외주식 관심 종목

회사명	자본금(억원)	발행주식수	현재가(원)
삼성생명	1,000	20,000,000	822,000
삼성광주전자	2,043	40,865,595	14,250
금호생명	4,012	80,253,006	5,900
미래에셋생명	5,259	105,180,000	16,850
현대삼호중공업	2,000	40,000,000	34,750
현대카드	8,023	160,465,284	13,650
삼성SDS	281	56,311,790	68,300
서울통신기술	55	11,004,000	36,000
한국증권금융	3,340	68,000,000	11,000
심포니에너지	55	10,933,965	4,250

(11월 24일 기준, 자료: 프리스탁)

◇어떻게 거래하나=장외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과 달리 비제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말한다. 장외주식을 거래할 때도 증권사 계좌는 필수적이다. 증권계좌를 마련한 투자자라면 장외주식 전문 사이트를 찾아 회원 가입을 하면 기본 준비는 끝난 셈이다. 대표적인 장외주식 사이트로는 프리스탁(www.presdaq.co.kr), 프리스탁(www.pstock.co.kr), 38커뮤니케이션(www.38.co.kr) 등이 있다.

매매를 원하는 장외종목을 선정했다면 각 사이트의 거래화면으로 이동해 주문을 입력하면 된다. 희망 수량, 매매가격, 연락처 등을 기입한 매수·매도 주문을 사이트에 올리면 주문이 끝난다. 다른 투자자들이 올려 놓은 매수·매도 주문 내역을 보고 전화를 통해 매매 협의를 하기도 한다.

확인하고 나서 잔금을 입금하면 된다. 팔 때는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뒤 실물을 입고시키고 잔금 입금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동일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회사가 발행한 실물 증권을 거래할 때는 주식 및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남겨받아 회사에 명의 개서를 신청해야 한다. 주권 자체가 발행되지 않았을 때는 명의개서를 요청하고 주권 대신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떼는 것으로 대신하면 된다.

◇투자요령=좋은 장외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투자회사의 수익모델이 확실하고 연속성이 있는지, 시장 지배력은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경영진의 자질 및 핵심 인력의 맨파워 등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상장 가능성은 확실하지만 아직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종목일수록 급등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 상장설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된 것은 지난 주다. 삼성생명 주가는 지난주 상장 일정을 밝히기 1주일전부터 급등했다. 반면 동양생명처럼 상장 일정이 알려진 주가는 상장후 오히려 떨어졌다.

같은 업종 내 상장사들과의 비교도 투자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상장한 같은 업종의 주식보

다 현저히 저평가된 장외 종목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대신 상장 기대감이 살아 있어 상장 종목에 비해 위험은 대폭 줄어든다. 또 배당 수익률이 확보된 주식일 경우 매력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장외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종목은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카드를 앞서는 업계 2위로 올라선 현대카드, 2010년 상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삼성SDS 등이다. 지역업체중에서는 조선사인 현대삼호중공업과 태양광 모듈업체인 심포니에너지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하지만 장외주식 매매는 사적인 거래인 만큼 조심해야 할 점도 많다. 돈을 먼저 받은 매도자가 실물을 넘기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등 거래 안전성에서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다. 유통물량이 적어 시세가 왜곡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가가 어떤 세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는지도 잘 챙겨봐야 한다.

위승환 HMC투자증권 광주지점장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나 장외주식 정보사이트를 통해 가치 비교를 하며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신보 복지점 개점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재욱)은 24일 오후 광주시 북구 매곡동 삼성프라자 4층에 '복지점(지점장 홍윤석)'을 개설하고 지역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개점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과 상인 등이 참석했다.

광주신세계 현금성 자산 1,252억

광주·전남 14개 상장사 중 가장 많아

광주·전남지역 상장사 가운데 현금성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는 광주신세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4개사의 올 3분기까지의 현금성 자산을 조사한 결과 광주신세계가 1천25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현금성 자산은 대차대조표 상의 현금과 보통예금 등 즉시 현금

화 할 수 있는 자금. 만기 1년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을 말한다. 광주신세계는 올해 들어서만 303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늘어 24일 종가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의 66%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보유한 현금성 자산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66%를 살 수 있다는 얘기다. 14개 상장사의 현금성 자산은 총 3천56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7.

8%인 978억원이 증가했다. 금호산업(490억4천800만원), KPX화인케미칼(483억9천100만원), 조선내화(242억7천100만원), 화천기공(196억9천400만원) 등도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현금성 자산 증가폭이 가장 큰 회사는 로케트전기로 이 회사는 180억원을 증자한 탓에 지난해 말 16억원이던 현금성 자산이 올해 9월 현재 120억원으로 754%나 급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 금리 담합 조사

공정위 의혹 관련 신고 접수

은행권이 공동으로 가산금리를 올려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관심을 두고 실

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은행권의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해 제재했을 때 업체 간 정보교환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출 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 관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www.kjbc.com

본점 (02) 227-9940

수원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울산점 (063) 851-2422

심야전기를 못쓰는 영업장소에 최고의 선택!

전기보일러

●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전기요금 절약 효과

● 안전하고 조용한 운전

● 설치 및 유지보수 용이

공주대리점 0335 539-4442

삼우상사 0335-4442

건물 옥상 지붕 태양광발전소

일련 부지 면적 선택은 가격 7~9무대(수익성)

2010년 1월 1일 기준

면적	가격	연간 수익
100㎡	1,000만원	100만원
200㎡	2,000만원	200만원
300㎡	3,000만원	300만원

▶ 2010년 1월 1일 기준, 100㎡면적 태양광발전소 1기

▶ 2010년 1월 1일 기준, 200㎡면적 태양광발전소 1기

▶ 2010년 1월 1일 기준, 300㎡면적 태양광발전소 1기

이런 전기요금 걱정 끝!!!

▶ 2010년 1월 1일 기준, 100㎡면적 태양광발전소 1기

▶ 2010년 1월 1일 기준, 200㎡면적 태양광발전소 1기

▶ 2010년 1월 1일 기준, 300㎡면적 태양광발전소 1기

0621575-6259

010-2614-5145